



언론중재위원회는
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
기다리고 있습니다.

「언론  사람」을 읽고 나서
느낀 점 등을 성명, 연락처와 함께
이메일(pac_news@pac.or.kr)로
보내주세요.
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
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.



백혜영

〈문화가 산책〉의 ‘클래식 음악과 가까워지기’라는 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. 몇 년 전 피아니스트의 거장 백건우의 연주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참 인상 깊게 들어서 그때부터 클래식에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지만, 생각보다 연주회에 갈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. 평상시에는 클래식을 라디오나 음반을 사서 들어야 하는데, 사려고 보면 한두 곡 정도만 알고 나머지는 모르는 곡이 많아서 사게 되지 않더라고요. 이대로 클래식과는 거리가 멀어지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글을 통해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참 좋아요. 라디오로 들을 때는 컵가에 머무르게 하고 집에서 들을 때도 생활 속에서 녹인다고 생각하라는 말 명심할게요. 유익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.

유현진

항상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오늘도 알차게 힘써주시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은 「언론  사람」을 보면서 늘 든든하게 느끼고 있습니다. 이번 호도 모든 기사들이 한결 같이 유익하고 좋은 내용이었지만, 그 중에서도 특히 〈신 동의보감〉에 소개된 ‘발효식품과 유익균’을 정말 유익하게 읽었습니다. 사람은 절대로 혼자서 살 수 없듯이 우리 몸은 유익균이 필요한데 이를 발효식품에서 찾아볼 수 있고, 그것을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은 더욱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. 이는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언론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썩어들어 갈 겁니다. 하지만 너무 과해도 문제라고 봅니다. 항상 우리 사회에 유익한 언론이 생기도록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유익한 발효식품이 돼주세요!!

소통하는 창,
언론중재위원회 SNS

여러분과 친구가
되고 싶어요!



www.facebook.com/pacnews



twitter.com/pac_news

